



8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전환,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하락 지속

이소양 연구원

■ 9월 9일 국가통계국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2%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5개월간 지속된 하락추세에서 반등했다고 발표하였는데,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제한할 것으로 분석됨.

-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져 식품가격이 상승하였고, 정부당국이 지난달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도 금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됨.
 - 8월 식품가격은 3.4% 상승한 반면, 비식품가격 상승률은 1.4%에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식품가격이 8월 물가 상승을 견인하였음.
- 올해 들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1월 4.5%, 2월 3.2%, 3월 3.6%, 4월 3.3%, 5월 3%, 6월 2.2%, 7월 1.8%로 지속 하향세를 보여 왔음.
- 전문가들은 8월 물가상승률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연말에는 3%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, 정부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세금감면정책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함.

■ 한편,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9.2로 50에 해당하는 임계점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, 이는 중국 제조업 경기 둔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
-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PMI는 5월부터 연속 하락하여 8월에 201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임계점인 50을 하회하였으며, 세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경제성장 둔화는 제조업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됨.
- 또한, HSBC가 발표한 PMI는 공식적 수치보다 더 낮은 47.6으로 2009년 3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
-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 및 역(逆) RP(환매조건부채권) 매입 등 통화확대정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어,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
(신량망, 인민망, 9/10 등)